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3호 【루계 제2753호】

주체112(2023)년 6월 3일 토요일 음력 4월 1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밝게 웃는 조선의 행복동이들

이 땅, 이 하늘아래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끝없이 넘쳐흐르고있다.

아이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에서 사람들은 공화국의 밝고 창창한 미래를 그려본다.

공화국의 가는 곳마다에서 들을수 있는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것인가.

* *

후대들을 위하여!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가 이 부름에 비껴있다.

되새겨보면 이 땅에는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전설들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 후대사랑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해방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시키시였고 온 나라가 불바다에 잠긴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학생소년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계속해나가도록 학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였으며 도처에 유자녀학원을 세우시여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지도록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 제일먼저 학교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과 소년단야영소부터 세워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10년은 더 젊어진다고 하시며 해마다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에 참석하시였으며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생신날에도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학교를 찾으신것을 비롯하여 국가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의 로고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저 하늘처럼 끝이 없다.

력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은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으로 간주하여온 아이들의 벗이였고 스승이였다. 하지만 새세대들을 나라와 민족의 미래로 보시고 한평생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 같으신분이 어디에 또 계셨던가.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력사는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졌다.

학생소년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시련의 시기에도 해빛밝은 교정들에서는 배움의 글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끊긴적 없었고 경치아름다운 조국의 명승지들에서는 야영의 기발이 창공높이 휘날리는 격동적인 화폭이 펼쳐질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인민군군인들이 마련한 동식물표본들을 보아주시고 교육부문에 보내주도록 하시였으며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와 삼지연군무봉중학교(당시)를 찾으시고 수업참관을 하신 감동깊은 사실들은 력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져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절세의 위인의 이 위대한 인생관에도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이 뜨겁게 어려있다.

진정 한평생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 계시며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사업에 억만금을 아끼지 않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였기에 이 나라의 아이들은 태여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 긍지높이 노래하며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이로,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계승자들로 무럭무럭 자라날수 있었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한다시며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억만자루의 품을 들이는 불같은 진정으로 미래를 꽃피우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혁명의 본질도, 목적도, 결과도 후대들의 성장과 행복에서 찾으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조국의 미래를 가꾸어가고계신다.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은 지나온 10여년 려정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화폭들을 소중히 되새겨보고있다.

주체101(2012)년 5월 신문과 방송, TV를 통하여 조선소년단창립 66돐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축전으로 경축하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세계가 깜짝 놀랐다.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2만여명이나 되는 나어린 학생들을 수도에 데려다 국가적인 경축행사를 한 례가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다는 알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중시, 후대사랑의 뜻에 의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열린 소년단원들의 경축행사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새겨질것인가를.

그때를 회상하며 민용항공부문의 중요한 직책에서 사업해온 한 일군은 후날 이런 글을 썼다.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비행기에서 내리는 소년단원들, 뜨겁게 마중하는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선발차의 안내를 받으며 시내를 향하여 달리는 수십대의 뻐스들…

참으로 세상에 부럼없는 이 나라 왕들의 행차였다. …》

하늘에 비행기가 날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수천명이나 되는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을 위해 려객기들이 날았다는 사실은 아직 어디에도 기록된것이 없다. 더우기 한 나라의 령도자가 아이들을 위해 비행조직으로부터 비행장의 날씨와 비행기의 안전상태까지 알아보며 마음쓰시였다는 이야기는 어느 위인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아이들은 조국의 오늘을 추동하고 래일을 앞당겨오는 힘이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간직되여있는 후대관, 미래관이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오성산의 까칠봉전호가에도, 위험천만한 화선에도 서슴없이 나서신분,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를 들으시며 온갖 피로가 가셔지신듯 환히 웃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바다 한복판 섬초소를 찾으시여서도 아이들을 먼저 품에 안아주시는 인민의 령도자, 소년단창립절을 크게 쇠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고 조선소년단창립 경축행사와 조선소년단대회들에도 몸소 참석하시여 축하도 해주신분, 소년단원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나란히 앉아 음악회도 관람하시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함께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인 소년단원들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부르시여 사랑의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온 나라 학생소년들이 받아안고있는 교복과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과 《해바라기》학용품에 어려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는 또 얼마나 감동깊은것인가.

지금도 사람들은 잊을수 없어 외우고 또 외운다.

지난해 총포성없는 방역전쟁으로 일각일초가 더없이 긴장하게 흐르던 그 나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인민사수의 최전방에서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로고에 로고를 바쳐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기젖가루, 암가루공급문제까지 세심히 관심해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혁명의 전도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새세대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달려있다는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받으시고 사랑과 정을 담아 한자한자 친필도 써보내주신다.

하기에 경애하는 그이께서 경상유치원과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여 넓으신 한품에 안아주시였던 귀여운 어린이들과 조선소년단창립 68돐이 되는 뜻깊은 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옵고 기념사진을 찍은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 등산간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며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원수님을 따라서며 노래 《불타는 소원》을 불렀던 학생소년들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경애하는 그이께 축구경기모습을 보여드렸던 소년축구선수들,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 경축연회에도 참가하였던 소년단원들, 아니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과 학생소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고있는것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우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수만 있다면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며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이 땅에서는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더욱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그렇다. 절세위인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이 나라의 아이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동이로,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6.1국제아동절 73돐기념 친선련환모임 진행

6.1국제아동절 73돐기념 친선련환모임이 1일 대성산유원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성학 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희태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유치원어린이들, 교양원들, 녀성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외교대표들, 대표부 성원들, 녀성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6.1국제아동절을 맞는 우리 어린이들과 모임에 참가한 여러 나라 손님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아이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어린이들처럼 행복한 아이들은 세상에 없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자라며 그들의 고운 꿈과 희망은 더 활짝 꽃펴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6월의 하늘가에 아동가요들의 선률이 울려퍼지는 속에 어린이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며 무럭무럭 자라는 자기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춤동작과 민속놀이들에 담아 펼쳐보이였다.

이어 체육유희오락경기가 있었다.

롱구륜에 공넣기, 군사놀이 등의 경기들에 출전한 꼬마선수들이 승벽을 부리는 귀여운 모습은 관중들에게 명절의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었다.

지혜를 겨루는 집짓기경기와 음악놀이, 바줄당기기 등은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자아냈다.

우리 어린이들이 벌리는 재미있는 유희오락경기들에 여러 나라 외국손님들도 한데 어울려 련환모임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경기가 끝난 후 어린이들은 원무를 펼치고 유희시설도 리용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였다.

한편 이날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도 국제아동절에 즈음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소중한 꿈과 희망을 꽃피워주는 아이들의 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고—

예로부터 《백사청송》이라 불리워온 조선의 동해명승 송도원에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꽃피워주는 희한한 궁전이 있다.

꿈속의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야영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최상급의 과외문화생활기지,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킨 여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는 조선의 밝고 창창한 미래가 비끼여있다.

* *

언제인가 미국의 CNN방송이 전한 기사의 한 대목이다.

《올여름에 벌찬 자식들을 달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는지, 그런 자식들을 조선으로 떠나보내라고 권고하고싶다.》

이 방송이 권유한 아이들의 야영지는 다름아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였다. 야영소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면서 CNN방송은 야영생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오아시스와 같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황홀경이고 보는것마다 경탄을 자아내는 멋쟁이야영소이다. 건물 하나, 계단 하나, 소개판 하나에도 학생소년들의 심리적특성과 지향을 반영하고 그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야영소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라는것이 세상사람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야영소에 발을 들여놓는 첫 순간 아이들의 입에서는 《야!》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야영생활기간에는 즐거운 등산길도 있고 난생처음 제손으로 음식을 만들어보는 기쁨도 맛볼수 있다. 수족관에서 바다세계를 구경할수 있고 신비한 《미궁》의 세계, 꿈속의 세계와도 같은 거울집에서의 길찾기는 야영생들의 웃음보를 터친다. 전자오락실에서 경쾌한 경마놀이 또한 신나다. 실내체육관, 립체률동영화관, 야외활쏘기장 등 야영소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아이들의 기쁨과 행복, 흥분과 랑만이 차넘친다.

꿈같은 야영생활로 시간가는줄 모르는 어린이들의 기쁨넘친 모습, 한번 오면 영원히 떠나고싶지 않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그대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날로 커가는 공화국의 현실을 생동하게 엿볼수 있게 하는 산 증거이다.

이에 대하여 어느한 나라의 인터네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였다.

《…맑고 푸른 조선동해의 기슭에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국제사회의 각별한 시선을 끄는것은 단지 그 황홀함때문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며 그들의 모든 꿈을 꽃피워주는 조선의 희한한 현실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있다. 첫째로, 야영소에 현대적으로 갖추어진 모든것이 야영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것이다. 둘째로, 다른 나라들같으면 백만장자나 특권층의 자식들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못할 훌륭한 곳에 로동자, 농민, 탄부, 어로공 등 평범한 근로자들의 자식들 지어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고있는것이다. 셋째로, 이 모든것이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로선과 정책의 구현이며 산물이라는것이다.》

무릇 아이들의 웃음에 가정의 화목과 번성이 깃든다고 하였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의 모습에 해당 사회의 면모와 민족의 전도가 비낀다.

하지만 이 행성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애어린 생명들이 참혹한 전쟁과 무서운 자연재해, 온갖 사회악속에 불행하게 시들어가고있는가.

극심한 아동학대가 만연된 미국에서는 지금 소년로동자가 25만명이상에 달하며 지어 아동로동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벌어져 사회계의 비난을 받고있다.

아동천시, 아동학대가 풍조로 되고있는 남조선사회에서도 근로대중의 아들딸들이 황량한 사막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이 꽃망울도 피워보지 못한채 사회악의 참담한 희생물이 되고있다. 이런 사회를 두고 어찌 미래가 있는 사회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어딜 가나 명당자리들마다에 아이들을 위한 멋쟁이 건축물, 행복의 별천지, 사랑의 궁전이 솟아있고 태여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이라고 기쁨의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강산에 차넘친다.

한번이라도 공화국에 와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보며 말하고있다.

김정은령도자의 후대사랑의 정치가 빛발치는 공화국이야말로 아이들의 천국, 아동만세의 세상이라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조용히 불러보면 한없는 격정으로 가슴이 젖어든다.

일찌기 미래를 사랑하지 않는 혁명, 미래를 가꾸지도 돌보지도 않는 혁명은 전망성이 없는 혁명이다, 그런 혁명이 그 어떤 금빛찬연한 리상을 달성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짓이라고 교시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그이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시며 풍치수려한 송도원에 아이들을 위한 야영소를 건설하는데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아낌없이 기울이도록 하시였다.

그처럼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는것도 미래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하여 투쟁하라는것이라고 하시며 자위의 총대로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려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의 자욱자욱을 새겨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없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의 노래구절로 눈물겹게 전하는 력사의 증견자도 바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이다.

바로 그래서이리라.

지금으로부터 10년전 5월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소년단야영소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우리 소년단원들을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후비대로 훌륭히 키워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 이듬해 한겨울의 차디찬 해풍이 기승을 부리던 2월에도 건설장을 찾으시였고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을 벌리던 4월의 그날에도 준공을 앞둔 이곳 야영소를 찾으시였다. 찾으시여서는 아직 란간도 세우지 못한 험한 계단을 오르내리시면서 아이들이 야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야영소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시려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나라의 귀중한 보배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힘이 들어도 질적으로 잘 건설해야 후대들에게 떳떳이 넘겨줄수 있다고 하시며 야영소에 최신식영화보급시설과 음향설비들, 각종 전자유희시설과 문화오락기재들도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야영소를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의 별천지, 온 나라 아이들의 기쁨과 행복의 궁전으로 꾸려주신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준공식날에는 아이들의 축구경기도 많은 시간을 내여 보아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축하공연과 야영소의 밤하늘에 터져오르는 축포도 학생소년들과 함께 보시며 온종일 끝없는 사랑과 정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정녕 위인전의 그 어느 갈피에 나라의 령도자가 아이들의 정깊은 아버지가 되여, 다심한 어머니가 되여 가장 숭고하고 헌신적이며 가장 지극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은 례가 있었던가.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한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는것이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이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하나만 보아도 후대사랑이 꽃피는 공화국의 밝은 현실을 알수 있다.

아직은 나이가 어려서 받아안은 행복의 크기를 다는 모르지만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것인가를 잘 알고있기에 즐거운 야영생활을 보낸 학생소년들은 일기장에 고마움의 글줄을 달린다.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속에 훌륭하게 꾸려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보내면서, 끼마다 맛있는 음식이 오르는 식탁에 마주앉을 때마다 아버지사랑, 어머니사랑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생각을 했다.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하여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

어찌 이것이 강계중등학원의 최선희학생 혼자만의 심정이랴. 야영생들모두가 행복했던 나날에 인상깊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일기장에 적어넣으며 보답의 일념을 가다듬는다.

조선의 미래가 이렇게 자라고있다.

절세위인의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의 다심하신 사랑, 한량없는 은정을 삶의 자양분으로 하여 이 나라의 새세대들이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씩씩하게 준비해가고있다.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위대한 정치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아이들도 어른들도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세세년년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며 공화국은 날로 더욱 부강해지고 륭성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범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10월 공화국의 국가방위력의 발전상을 잘 알수 있게 하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하신 력사적인 기념연설에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우선 강해지고봐야 한다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후대들을 위하여.

얼마나 가슴울리는 말씀인가.

나라가 힘이 약하면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에 의해 인민이 전쟁의 참화를 입게 된다. 특히 녀성들과 아이들이 제일 큰 불행과 재난을 당하게 된다.

미국에 의하여 강요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침략자들의 만행으로 참혹한 재난을 당하였는가. 꽃망울을 피워보지도 못한채 참혹하게 숨지고 한순간에 고아가 되여 처절한 눈물을 흘리는 어린이들의 참상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쓰리게 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도 자위의 힘이 강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대들의 얼굴에 단 한점의 그늘도 지지 않게 하시려고, 불행과 전쟁을 모르고 오직 행복속에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시려고 위험천만한 화선에도 서슴없이 나가시여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절대적힘을 다져주시였다.

장군님, 가시면 안됩니다. 앞에는 최전선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총포탄과 폭탄이 작렬하는 위험천만한 전선길을 헤쳐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앞길을 막아서며 인민군용사들은 이렇게 간절히 아뢰였다.

오늘도 전화의 그날처럼 인민은 령도자께 위험천만한 화선길을 더는 걷지 마시라고 간절히 아뢰이고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안녕을 위해,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위험천만한 화선길을 쉬임없이 걸으시고계신다.

또한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최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대해같은 사랑을 베풀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도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나라의 귀중한 자금을 들여 한날한시에 새 교복을 해입히시고 학용품도 일식으로 안겨주시며 사랑에 사랑을 거듭 안겨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아이들이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본사기자 주 일 봉

◎ 미래사랑을 꽃피우시는 길에서 ◎

오랜 시간 아이들을 기다리시며

주체102(2013)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시 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였다.

야영소의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야영생들이 몇시에 돌아오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17시경에야 등산을 끝내고 내려오게 되여있다고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빨리 가서 야영생들을 다 데려와야 하겠다고, 자신께서 여기까지 왔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가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천금과도 같은 귀한 오랜 시간을 바쳐 기다리시여 야영생들을 한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한한 행복에 겨워 눈물을 쏟고있는 아이들에게 울지 말고 찍어야 사진이 잘 된다고, 어서 눈물을 그치고 사진을 찍자고 달래시며 사랑의 기념사진을 남기시였다.

제일 관심하는 공장

주체105(2016)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훌륭히 일떠선 공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의 생산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공장이 일떠선 결과 학습장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들레학습장공장은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줌으로써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겨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뜨거운 미래사랑으로

주체105(201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시였을 때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의 어느한 각의 현관홀정면에 정중히 모셔진 영상미술작품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전선시찰의 머나먼 길에서 야전차를 세우시고 야영가는 아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이였다.

깊은 추억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최전연초소로 달리던 야전차에서 내리시여 야영가는 아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보니 《장군님과 아이들》이라는 노래가 생각난다고, 노래 《장군님과 아이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쪽잠으로 잠을 대신하고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전선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높이 구가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연깊은 노래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뜨거운 미래사랑으로 지켜주신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영원히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절세위인께 인민이 삼가 드린 칭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며 이 나라 아이들이 감격에 겨워 목청껏 터치고있는 부름이다.

인류가 기억하고있는 위인들은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중의 미덕으로 간주하여온 아이들의 벗이였고 스승이였다.

그러나 조국의 미래, 후대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그 누가 따를수 있을것인가.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곤난한 시기에 굳건히 지켜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먼 후날에 가서 사회주의승리의 함성으로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인민들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에서 보람을 찾는것이 혁명가들이다.

이런 열화같은 사상감정으로 심장을 끓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을 하루빨리 안겨주기 위해 그리도 마음쓰시는것이며 그 어디에 가시여서도 우리 후대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깡그리 기울이시는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아버지라 찾고 부른다. 동심에 새겨안기에는 그 진정이 너무도 뜨겁고 꿈만 같은것이여서, 어린 마음에도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숭고한 사랑으로 느껴지기에 우리 아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올 때면 《아버지!》 라고 부르며 저마다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린다.

나라의 중대사를 토의하는 당중앙전원회의에서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하시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뜻밖의 재난을 당한 북변땅 학생소년들의 얼굴에 그늘이 질세라 행복의 야영길을 펼쳐주시였으며 비오는 궂은날에도 건설장을 찾으시여 아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병원을 일떠세워주시려고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아이들이 즐겨 보는 만화영화에까지 관심을 돌려주시고 책가방과 학용품을 생산하는 현장에까지 찾아가시여 하나하나의 제품에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같으신 령도자가 이 세상에 또 어데 계시랴.

이런 사랑과 정의 뜨거운 화원속에 우리 글을 익힌지 얼마 안되는 철없는 아이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편지를 올리고 그이께서는 아버지가 회답을 보내듯 친필을 새겨주시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생겨나게 되였다.

예로부터 설음중에서 제일 큰 설음은 고아의 설음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는 친부모도 주지 못하는 혈육의 정이 부모없는 아이들의 가슴에 따뜻이 흘러들고있다.

온 나라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시여 육친의 정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을 안으시고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 초상화앞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원아들이 단란한 한식솔이 되여 찍은 그날의 뜻깊은 기념사진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족사진이 아니겠는가.

여기에는 모든것이 다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먹일 물고기의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던 그 순간이며 신년사를 하면서 온 나라의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해주고보니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원아들이 더욱 보고싶었다고 하시면서 새해 첫날 원아들과 함께 계신 가슴뜨거운 사연도, 몸이 허약한 원아들이 있다는것을 아시고 군인들이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는 병원에 입원시켜 특별히 보양치료를 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신 감동깊은 일화도, 우리는 무슨 이름을 하나 달아도 조국애가 뜨겁게 안겨오고 민족적향취가 한껏 풍기게 달아야 한다고, 이제 학습장공장에서 《민들레》상표를 단 학습장을 생산하면 우리 학생들의 가방도 우리의것, 교복도 우리의것, 학습장도 다 우리의것으로 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를 꽃피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래사랑의 세계도…

아직은 《원수님》이라는 호칭에 담긴 그 깊은 뜻을 알수 없는 아이들이 우리 원수님의 품을 파고들며 《아버지!》라고 스스럼없이 부르는 모습이야말로 그 무엇으로써도 지어낼래야 지어낼수 없는, 오직 이 땅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혈연의 화폭이다.

《아버지!》, 이 세상 가장 훌륭한 말마디들을 고르고골라도 이보다 더 좋은 친근한 부름을 찾을수 없기에 우리 아이들은 《꿈결에도 보고싶은 우리 아버지, 아 보고싶은 김정은원수님》이라고 오늘도 목청껏 노래부른다.

리 일 현

행복의 웃음, 불행의 눈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의 대평지구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했다.

며칠전 새시대 평양번영기에 또다시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에 입사한 삼촌네 가정을 찾은 나는 볼수록 황홀한 사회주의문명의 리상향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시원하게 뻗어간 드넓은 도로를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특색있게 조화를 이룬 다층, 고층살림집들과 학교, 진료소, 상점, 목욕탕, 빨래집을 비롯한 각종 봉사시설들, 곳곳에 이채롭게 펼쳐진 원림록지구간들…

밝은 해살이 비쳐드는 넓은 살림방들과 큼직한 부엌, 세면장, 창고 등 살림집의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더할나위없이 훌륭하였다.

주변풍치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태고적부터 천하절승으로 일러오는 만경대와 《평양의 금강산》으로 이름높은 룡악산이 지척에 있고 맛과 수질이 좋은 룡악산샘물이 솟아나 장수자가 많기로 유명한 이곳이 아닌가.

자본주의사회같으면 돈많은 부자들이나 차지할 둘도 없는 명당자리에 평범한 철거세대주민들을 위한 살림집들이 일떠섰으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웠다.

송전선건설사업소에서 로동자로 일하고있는 삼촌은 나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원수님의 은덕으로 평범한 로동자인 내가 새 보금자리의 주인이 되였다. 우리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해 희한한 살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나라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니.》라고 말하며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런 진정넘친 목소리는 새집에 입사한 사람들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었다.

새집에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의 직업과 경력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그들모두는 나라에서 온갖 사랑과 정을 다해 위해주고 보살펴주는 철거세대주민들이다.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할바없이 훌륭한 새 살림집을 받아안고 격정에 눈굽을 적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우리 가정이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의 살림집을 받아안던 때의 광경이 생생히 떠올랐다.

나도 한때 철거세대주민이였다. 려명거리건설을 위해 철거하던 날 나는 살던 집을 보고 또 보며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했었다.

철거되여 없어지게 될 옛집에 대한 《정》때문이였던가. 아니였다.

철거세대주민들을 비롯한 수도시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나라의 혜택이 크고 고마와서였다. 그런 나에게 려명거리건설지휘부의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은 우리 당의 뜻입니다. 철거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멋있는 새 살림집을 인차 지어주겠습니다.》

《철거기간이 길면 어떻다는겁니까. 더 좋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게 되는것만도 고마운데…》

《걱정마시고 어서 맘편히 떠나십시오.》

그 일군의 말은 나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때로부터 불과 1년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려명거리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우리 철거세대주민들에게도 제일먼저 살림집리용허가증을 수여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실줄 어찌 알았으랴.

려명거리가 어떤 거리인가. 우리 원수님께서 직접 구상하시고 건설을 선포하시였으며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일떠세워주신 세계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별천지가 아닌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려명거리의 살림집을 우리 철거세대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안겨주었으니 하늘같은 그 은덕이 고마워 우리 온 가족은 목청껏 《만세!》를 웨쳤다.

철거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나 있다. 하지만 철거되는 사람들의 처지와 운명은 사회제도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 공화국에서의 철거, 그것은 낡은 집을 떠나 새집에서의 행복한 생활, 더 좋고 문명한 생활에로의 시작을 의미한다.

나라에서 철거세대주민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피며 더 좋은 새집을 지어 무상으로 안겨주니 우리 사회에서 철거세대주민이라는 말은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이와 반면에 극소수 특권층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철거민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권세있고 돈있는자들만의 세상인 남조선에도 도시개발이란 명목으로 벌어지는 철거바람에 한지에 나앉아 지하철도와 역대합실에서 새우잠을 자는 사람들, 움막집, 판자집, 비닐박막집, 짐함집 등 집 아닌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거처할 곳조차 없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다.

이들에게 살림을 펼 보금자리가 언제 생기겠는가 하는것은 기약할수 없다. 아니 생각조차 할수 없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철거민들의 불행과 고통, 아픔에 대해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있다. 오죽하면 철거민들이 분신자살로 항거하며 생존권보장을 목터지게 절규하고있겠는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살던 한 청년은 《세방살이를 하며 어머니와 살다가 강제철거로 쫓겨났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다. 래일이 오는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강물에 뛰여들어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예로부터 설음, 설음 해도 집없는 설음이 제일 큰 설음이라고 일러왔다.

철거세대주민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나라에서 지어준 덩실한 집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공화국과 몸 담을 집 한칸조차 없어 거리와 골목을 헤매는 철거민들의 원성이 차넘치는 남조선의 판이한 두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이 활짝 꽃펴나는 우리 공화국이 근로하는 인민을 위한 참세상이라면 극소수 특권층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남조선사회야말로 근로인생들에게 있어서 사람못살 지옥이라는것이다.

눈앞에 숭엄하게 어려왔다.

일군들에게 철거되는 세대들이 겨울에 이사를 하게 하면 곤난한 점이 많을것이라고 하시며 살림집건설에 힘을 넣어 빨리 완공한 다음 거기에 철거지대 사람들을 옮기고 새 거리건설에 착수하도록 간곡히 당부하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인민들의 생활을 당에서 돌보고 나라에서 돌봐주는것이 바로 로동당의 정책이고 우리 당의 군중로선이라고 하시며 철거세대주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앞세우는 조건에서 삼수발전소건설을 끝내고 전기도 생산하도록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철거세대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하루빨리 가셔주시기 위해 중요당회의때마다 인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건설력량도 돌려주시였으며 최대비상방역기간에도 공사를 중단없이 밀고나가도록 하시고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아쉬움도 없는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 깊이 마음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진정 인민의 어버이를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이 땅 어디서나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는것 아니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함에 철저히 복종지향시키시며 사랑과 정으로 행복의 락원을 가꾸어가시는 위대한 어버이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영원히 안겨살 온 나라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런가 삼촌네 집의 TV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소리가 울리고있었다.

홍 영 철

수필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로

언어, 말을 떠나 사람들의 생활을 론한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을것이다.

그만큼 언어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표현수단이며 위력한 소통수단이다.

그러나 많이 들었어도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하는 말이 있고 짧은 말속에서도 깊은 공감과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있음을 우리는 생활과정에 종종 느끼군 한다.

얼마전 퇴근길 뻐스에서 나는 우연히 뒤에 앉았던 처녀들의 대화를 듣게 되였다.

《참, 너 들었니? 봄향이가 시집간대.》

《정말?》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로.》

《그건 무슨 소리가?》

《얜 참, 송화거리에서 화성지구의 새 거리로 시집을 간단 말이야.》

《호호호. 정말 그렇구나. 야, 송화거리도 새 거리인데 이제 또 화성지구의 새집으로 시집을? 그러고보니 새 거리에서 새 거리로 시집을 가서 새 가정을 이루겠구나!》

《그리고 아기도 낳고… 호호호.》

낯모를 처녀들의 대화이건만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짐을 느끼며 나는 가만히 되뇌였다.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로!

그 한마디 말이 왜 이리도 가슴을 쿵— 치는것인가?

세상을 놀래우는 신화적인 건설속도로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벅찬 숨결이 가슴에 흘러들었고 꿈만 같던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고 터치던 격정의 목소리들이 귀전에 울리는듯 싶었다.

눈부시게 일떠선 인민의 리상향 송화거리에 보금자리를 폈던 그 기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현대건축미를 자랑하며 솟구쳐오른 화성지구의 선경거리에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처녀.

나의 눈앞에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차려입고 송화거리를 떠난 처녀가 수집은 미소를 띠우며 화성거리의 새집에 들어서는 모습이 방불히 안겨왔다.

그리고 왜서인지 처녀들이 나눈 대화의 주인공이 생면부지의 처녀로 느껴지지 않았다.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문명을 상징하며 솟구쳐오른 인민의 새 거리들마다에서 이러한 처녀들, 새 가정을 이루는 청춘남녀들을 날에날마다 볼수 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깊어지는 생각은 나를 환희의 축포가 오르던 새 거리들의 준공식장으로 이끌었다.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번화가건설의 전과정을 이끌어주시던 그 심혈과 로고는 묻어두시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준공테프를 끊으시던 우리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어려왔다.

진정 인민을 위한 길에서 끝을 모르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인민의 만복을 위한 새로운 설계도를 련이어 펼치였고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위민헌신의 그 자욱자욱우에 해마다 현대문명이 응축된 새 거리들, 행복의 별천지들이 련이어 솟아올랐으며 사회주의농촌마다에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참으로 인민의 새 거리, 인민의 보금자리가 늘어날수록 인민의 행복은 나날이 커만갔고 인민의 리상과 문명의 높이는 더더욱 높아졌으며 내 조국의 모습은 세상이 놀라도록, 우리자신도 믿기 어렵게 천지개벽되였다.

언제인가 신문에서 보았던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이 아프게 안겨들었다.

집이 없어 세방살이로 시작한 신혼부부가 집세를 물지 못해 어떤 때는 2~3달, 어떤 때는 5개월에 한번씩 쫓겨나 2년동안에 8번이상 이사짐을 싸야만 했던 설음이 글줄마다 슴배여있었다.

새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제 집을 가지는것만큼 큰 소원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 신혼부부는 초호화주택들, 돈만 내면 살수 있는 집들이 눈앞에 있었건만 제 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끝끝내 산같은 빚독촉에 목숨을 끊어야만 했다.

이러한 비극은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 부익부, 빈익빈의 썩고 병든 사회가 낳은 산물로서 치유불능의 악성종양처럼 근로대중의 삶을 고통과 절망, 죽음에로 몰아가고있다.

이런 지옥같은 사회이기에 청춘남녀들이 결혼을 포기하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고 근로대중에게 있어서 제 집을 마련하는것은 언제 가도 실현할수 없는 헛된 꿈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일생을 약속한 청춘남녀들이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며 솟구쳐오른 인민의 리상거리, 새 거리에서 또 다른 새 거리에로 행복의 보금자리를 옮기는것이 례상사로 되고있다.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로!

세방살이에서 자살의 길로!

이것이 바로 인민의 리상이 꽃펴나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와 인민의 꿈이 짓밟히는 자본주의제도와의 판이한 두 현실이고 승승장구하는 사회와 몰락해가는 사회와의 숨길수 없는 차이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 번화가들을 일떠세운 나라는 많아도 인민의 리상거리들을 눈부신 실체로 련이어 일떠세우며 인민의 행복을 만발하는 화원처럼 활짝 꽃피우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는 오직 우리의 사회주의조국뿐이다.

앞으로 위대한 어버이의 손길아래 계속 일떠설 더욱 훌륭하고 아름다운 새 거리, 새 보금자리들에서 얼마나 많은 청춘남녀들이 새 가정을 이룰것인가.

새 거리에서 새 거리에로!

진정 짤막한 말이였건만 눈부신 변혁의 시대, 격동으로 가슴부푸는 영광의 세월속에 값높은 삶을 누리는 인민의 행복상이 비껴있는 말이였고 우리 원수님 안아오시는 휘황찬란한 래일을 벅차게 안아보게 하는 말이였다.

리 철 준

투고

《빨리 가자!》

뻐스가 멈춰서자 서두르며 내린 사람들이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으로 물결쳐갔다.

빨간 안전모를 단정히 눌러쓴 처녀들이 나의 앞쪽에서 《빨리 가자!》 하며 종종걸음을 치더니 내 뒤쪽에서도 대학생총각들이 처녀들에게 뒤질세라 《빨리 가자구!》 하면서 걸음을 다그치는것이였다.

그러고보니 여기저기서 《빨리 가자!》는 소리가 연방 들려오는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듣느라니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에 지원나온 내 걸음도 자연히 빨라지는듯했다.

생활속에서 너무도 귀에 익게 들어오던 《빨리 가자!》는 그 말이 류다르게 들려오는 여기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

《빨리 가자!》

단순한 이 말에 어서빨리 건설장으로 달려가 모래 한삽이라도 더 많이 뜨고 한개의 블로크라도 더 나르고싶어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깃들어있는것 아닌가.

건설장에 도착해보니 여기에서도 들려오는 말은 역시 《빨리!》라는 이 말이였다.

빨리 달리자! 빨리 나르자!…

그야말로 뛰고 달리는 모습들이였다.

애어린 단발머리 처녀돌격대원도, 나이가 있어보이는 지휘관도, 지원나온 청년들도 모두가 뛰고있었다.

벽보판에 큼직하게 써있는 《달리자! 걷는자는 길을 비켜라》라는 글발을 보아도 청년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투쟁본때를 알수 있게 한다.

순간의 답보도 모르고 달리고달리는 우리 청년들의 번개같은 일본새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건설장의 모습이다.

어찌 여기뿐이던가.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온 나라의 건설전역들에서는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기적적인 속도로 단숨에 해내고야마는 우리 청년들이 앞장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우리 청년들의 힘찬 걸음새!

돌이켜보면 천리마대고조시기 300%돌파운동, 공걸음반대운동 등을 창안하여 3~4년이 걸려야 한다는 해주—하성철길건설공사를 단 75일만에 해제낀 건설자들도 다름아닌 우리 청년들이였고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만족하지 않아하던 강계청년발전소건설자들도 바로 우리 청년들이였다.

청춘의 슬기와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 조국의 새로운 번영기, 격변기를 안아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이 이룩한 그 창조속도와 일본새가 오늘도 새세대 청년들의 힘찬 맥박속에, 힘찬 발걸음속에 그대로 이어지고있는것이다.

이런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은 새세대 청년들이 국가의 전진을 떠밀고나가기에 우리 공화국은 더욱 굳세고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의 이 진취적인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되게 사회의 골치거리로 되고있는 청년들, 일하기 싫어하고 유흥에 빠져 허송세월하고있는 그런 타락한 청년들이 자본주의세계에는 얼마나 많은가.

넘치는 힘과 열정을 변태적이고 라태한 생활을 추구하는데 탕진하면서 인륜을 더럽히고 패륜패덕만 산생시켜 사회를 어지럽히고있다.

결국은 사회를 바른길로 떠밀어야 할 청년들이 오히려 앞장에서 사회를 더욱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촉매같은 역할을 하고있는것이다.

조국의 전진을 앞장에서 떠밀어나가며 더 좋은 래일을 빨리 앞당겨오는 공화국의 미더운 청년들과 가뜩이나 부패와 범죄로 썩어드는 사회를 더욱더 빠르게 부식시켜나가는 자본주의사회의 청년들.

이들의 판이한 모습에 빠르게 발전하는 전도양양한 내 조국의 찬란한 미래와 암흑속에 방황하며 빠르게 멸망해가는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래일이 비껴있다.

아름답고 눈부신 래일을 앞당겨오기 위해 하루를 일년맞잡이로 세월을 주름잡으며 기적과 위훈을 떨쳐가고있는 공화국의 미더운 청년들.

《빨리 가자!》

이 말은 완공된 거리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실 영광의 그날을 그리며 령도자의 품으로 달리고 달려가는 공화국청년들의 불타는 심장의 힘찬 박동소리이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리상과 념원을 맨 앞장에서 가장 빨리, 가장 완벽하게 실천해나가는 공화국청년들의 뜨거운 혁명열, 불굴의 투쟁열이 터치는 힘찬 전진의 메아리이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실려 우리 공화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이 더 빨리 마중오고있다.

유 현 의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기관단총을 반드시 자체로 만들어야 한다

주체36(1947)년 9월 15일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집무실로 병기공장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경력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해방전에 평양병기제조소에서 오래동안 일하였기때문에 무기수리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을것이라고 하시며 오늘 동무들에게 중요한 과업을 주자고 불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흥분으로 가슴들먹이는 그들을 믿음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나라를 자체의 힘으로 보위하기 위하여 정규무력을 창건하려고 한다고,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군인들을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 우리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무기를 생산하여 군인들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군인들을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다 사올수는 없다고, 무기는 값이 매우 비싸고 또 다른 나라에서 주겠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빚을 지고라도 사올수 있지만 안주겠다고 할 때에는 손을 털고 빈손으로 가만히 앉아있을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였다.

《기관단총을 만들수 있겠습니까?》

뜻밖의 물으심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 겨우 무기수리나 하는 공장에서 보통무기도 아닌 현대적인 기관단총을 만든다는것이 자기들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갓 조업한 공장에 오시여 가르쳐주신 항일유격대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생각하며 그들은 만들수 있다고 대답을 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제힘으로 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고 달라붙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믿음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동무들이 해방전에 병기제조소에서 무기수리를 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으므로 설비와 자재만 대주면 결의한대로 기관단총을 능히 만들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시고 기관단총을 만들자면 먼저 부속품들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이 완성되면 그 도면을 여러 기계공장들에 나누어주어 부속품을 깎게 하고 병기공장에서는 그것을 가져다 기관단총을 조립할데 대해 일일이 가르쳐주신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기관단총은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군님, 우리 힘으로 꼭 기관단총을 만들겠습니다.》

공장일군들의 신심에 넘친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김책에게 북조선인민위원회 산업국에서는 기관단총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 병기공장 일군들에게 한 20일동안 달라붙어 기관단총을 한정 만들어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우리 정규적혁명무력의 무장장비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확고한 의지를 심장에 새겨안은 병기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그이께서 주신 과업을 기어이 수행할 비장한 결의를 가다듬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개발사업을 벌려 빠른 시일내에 자기들의 손으로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첫 기관단총시제품을 만들어내고야말았다.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태양의 품에 안겨 (2)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련석회의는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그때 북으로 쏠리는 민심을 타고 완고한 민족주의자이며 남조선의 우익정객의 거두의 한사람인 김구선생도 평양으로 오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평양으로 찾아오는 김구선생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 이 중요한 사업을 앞에 놓고 제일먼저 생각하신것은 안신호녀성이였다.

련석회의날자가 가까와오던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신호녀성을 집무실에서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구선생이 곧 평양으로 오게 되는데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김구선생과의 사업을 선생에게 맡기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놀라와하는 안신호녀성을 지켜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이 김구선생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김구선생의 지난날을 문제시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뉘우치도록 잘 일깨워주라고, 같은 민족의 정으로 따뜻이 대해주라고 하시면서 선생이 잘 이야기해주면 김구선생이 느끼는것이 많을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이튿날 안신호녀성을 만나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지난날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뉘우치고 애국의 길로 나가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손잡고나가는것이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해오신 립장이라고 하시며 부위원장선생이야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고 또 해방후 3년간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사업한 경험도 있으며 김구선생과 잘 아는 사이인데 겁날것이 없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가 물을 때는 보태지도 덜지도 말고 해방후 오늘까지 느끼고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4월 20일 평양에 발을 들여놓기 바쁘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뛰여난 도량과 인품에 크게 감복한 김구선생이였건만 고집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누구보다 안신호를 만나보아야겠다는것이 그의 생각이였다.

안신호녀성은 김구선생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월남북련석회의가 진행된 평양의 모란봉극장

김일성장군님의 공산주의는 지금까지의 기존개념으로는 잴수 없는 제일 좋은 정치리념이라고 본다. 장군님의 공산주의를 다는 알수 없지만 내가 보기엔 우리의 민족성원모두를 바른길로 이끌어 애국자로 키우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선양하며 온 국민이 착취와 압박을 모르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오빠는 애국애족이니, 독립운동이니 하면서 덮어놓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였고 우리 민족을 무력한 존재로 깔보며 대국만을 숭배했다. 아마 오늘 북의 현실을 보았더라면 오빠도 가슴을 치면서 눈먼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운동을 다시해야겠다고 일어섰을것이다.

…

안신호녀성은 4월 27일 오전 김구선생과 조완구, 엄항섭, 안우생 등을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안창호의 고향집으로 안내하였다.

한평생 공산주의에 역행한 우익민족주의자의 누이동생, 선행공산주의창시자들이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한 종교의 독실한 신자가 김일성장군님의 슬하에서 녀성동맹의 지도간부로, 북조선최고립법기관의 대의원으로 있다는 사실앞에서 김구선생의 공산주의에 대한 의혹은 송두리채 박산나고말았다.

4월말 어느날 안신호녀성을 다시 만나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구선생과의 사업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씨원하게 말을 잘해주었다고 높이 치하하신데 대하여 알려주시며 무척 기뻐하시였다.

나무는 큰 나무덕을 못보아도 사람은 큰사람의 덕을 본다고 하였듯이 민족의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그 광휘로운 빛발과 한량없는 은정을 받아안았기에 안신호녀성은 하느님앞에 자기 속죄나 하면서 래세의 천당만을 바라던 그리스도교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 조선의 어엿한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민족의 대단합실현에 이바지하는 책임적인 사업도 감당할수 있었던것이다.

본사기자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

-총련에서 전형창조운동 활발히 전개-

총련의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해 9월 총련본부위원장회의 제25기 제1차회의에서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형창조운동》을 벌려나갈것을 결정한데 이어 올해 3월에 진행된 제2차회의를 계기로 전조직이 《강령적서한 접수 1돐을 전형창조의 빛나는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2개월집중전》에 총궐기해나섰다. 현재는 주요 총련본부위원장회의(4월 26일)를 계기로 총련중앙과 본부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총공세로 이 운동을 벌려나가고있다.

전형창조운동이 시작된 후 각급 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동포제일주의를 사상적종자로 틀어쥐고 서한에서 제시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4대과업에 따라 일군들과 동포들의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의견과 단위별실정에 맞게 전형창조의 기본주제를 설정하고 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고있다.

지난해 10월 총련 도꾜도본부가 모든 조직, 모든 분야, 모든 전선에서 새 경험과 새 성과를 이룩하여 전형창조운동에서 앞장서나갈 결의를 안고 운동에 궐기해나선것을 비롯하여 총련본부, 지부들이 전형창조의 기본주제를 정하여 운동을 박력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동포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전형창조의 주제를 정한 단위들에서는 동포생활상담쎈터사업을 재정비, 정상화하여 동포들에 대한 봉사복지활동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가고있다.

민족교육사업과 관련한 전형창조의 주제를 정한 단위들에서는 학생, 원아인입사업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민족교육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대상자들과의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또한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운동으로서 동포방문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는 단위들도 있다.

이처럼 총련의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결의를 안고 전형창조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이 과정에 귀중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총련 제13차 중앙어머니대회

도꾜에서 진행

총련 제13차 중앙어머니대회가 얼마전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재일조선녀성운동을 애국애족운동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민족교육고수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녀성동맹 일군들과 열성자들, 새세대 어머니들을 녀성동맹의 핵심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조직되였다.

《참된 어머니사랑은 민족교육으로부터》, 《사랑하는 아이들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들로 진행된 대회에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와 녀성동맹본부 일군들, 동포녀성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였다.

강추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회를 사회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동포녀성들을 자녀들에게 조국애와 민족적자존심을 키워주는 첫 스승, 자녀들의 아름다운 꿈을 지켜 민족교육의 화원을 제일 품들여 가꾸는 원예사로 높이 내세워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대로 자녀들을 조선사람으로 키우자면 이국의 모진 칼바람을 이겨내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며 이 성스러운 애국위업은 녀성동맹과 동포녀성들이 앞장에 설 때에만 승리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녀성동맹 각급 조직들이 민족교육고수를 위한 사업에 모든 힘, 모든 력량을 총집중하여 새로운 긍정, 새로운 성과를 창조한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동포녀성들속에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자녀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 키워야 하며 그 첫 스승인 어머니들의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애가 아이들에게 꿋꿋이 이어질 때에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이 마련되게 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민족교육의 진가와 민족교육을 기어이 지켜나갈 동포어머니들의 굳은 결심을 내외에 크게 과시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강연도 진행되였다.

강연자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떳떳한 조선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길에 아이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면서 민족교육을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를 책임질수 있는 교육, 동포들이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축하공연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전체 재일동포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예속적인 《협정》들을 통한 식민지통치의 강화

미국은 남조선에 《미군정》통치기구의 직접적연장으로서 괴뢰정부를 조작하고 《독립국》이라고 선전하는 한편 남조선에 대한 실제적통치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정권이양》의 간판밑에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협정》을 강요해나섰다.

미국은 1948년 8월 24일 《과도기간 잠정적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과 1948년 9월 11일 남조선미국《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을 강압체결하여 군사경찰력에 대한 지휘통수권은 물론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실제적지배권을 교활하게 《합법화》하였으며 그것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그후 《마샬안》에 기초한 이른바 《부흥원조》를 실시하기 위한 《경제협력법》과 군사《원조》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방위원조법》에 따르는 침략적인 쌍무협정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남조선에 대한 실제적지배권을 더욱 확대하였다.

미국은 《경제협력법》에 따라 1948년 12월 10일 조작한 남조선미국《경제원조협정》이라는것을 통하여 저들의 침략전쟁정책과 식민지화의 요구에 맞는 조건에서만 《원조》가 제공된다는것을 로골적으로 규정하고 정치경제의 모든 분야에서의 미국의 지배권과 내정간섭을 《합법화》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협정》에 근거하여 《경제협조처 주한사절단》이라는것까지 들이밀어 《원조대표》의 명목밑에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를 직접 현지에서 지휘할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군사고문단》에 의한 지배형식을 취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본데로부터 1950년 1월 26일 《주한미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을 조작하여 군사적폭력에 의한 식민지지배를 《합법화》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강요한 이러한 《협정》들은 남조선에서의 실제적통치권의 《법적담보》로 되였으며 미국은 이러한 《법적담보》를 리용하여 조작한 식민지지배기구를 통하여 남조선괴뢰정권을 배후에서 지휘, 통제, 감독, 조종하는 체계를 세워놓았다.

남조선에 둥지를 튼 미국의 현지지배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이 바로 《주한미대사관》이였으며 미국대사는 남조선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실제상의 총독행세를 하는 남조선정치의 막후지배자로 군림하였다.

당시 외국의 한 통신은 남조선의 정치는 《미국무성의 직접적통제하에 있으며 오랜 극동통의 외교가인 무쵸가 지도하는 방대한 현지기관에 의하여 실시되고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남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현지기구들의 사업을 정보모략을 통하여 뒤받침하며 남조선과 나아가서는 전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중앙정보국, 미제침략군첩보대, 맥아더사령부정보국과 그의 남조선련락사무소 등 각종 정보기관을 남조선에 침투시켜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악랄하게 실행하였다.

미국의 한 출판물도 이에 대해 전하면서 《1948년 5월의 제1회 〈선거〉에 기초하여 남조선 〈정권〉은 리승만을 두목으로 하여 발족했다. 그러나 이 〈독립〉은 사실에 있어서는 미점령제도의 실질적인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것, 다만 미국의 대중국, 대쏘공격을 위한 군사기지화의 과정이 강화된데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곧 명백하여졌다.》고 까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야말로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식민지통치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로광혁

오늘도 울려오는 6.3봉기의 메아리

오늘은 남조선에서 6.3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59년이 되는 날이다.

6.3봉기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극악한 사대매국노인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을 타도하기 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제반파쑈애국투쟁이였다.

1964년당시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라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으면서 범죄적인 남조선일본《회담》을 타결지으려고 서둘러댔다.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반민족적인 책동에 격분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특히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4년 3월 12일부터 제6차 남조선일본《회담》의 막이 열리게 되자 이를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은 더욱 강화되였다.

3월 24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 500여명은 남조선일본《회담》반대 성토대회를 가지고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선언문에서 을사년(1905년)에 《보호조약》을 강요했던 일본제국주의가 갑진년(1964년)에 또 하나의 《보호조약》을 강요하려고 날뛰는데 대해서와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자본의 시녀가 되여 굴욕외교를 감행하는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매국적죄상을 낱낱이 고발하였다.

성토대회가 끝난 후 청년학생들은 《대일굴욕외교반대》라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투쟁에 나섰다.

서울에서 타오른 투쟁의 불길은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져 대구, 부산, 광주 등 남조선의 전 지역에로 확대되였다.

범죄적인 남조선일본《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1964년 6월 3일에 이르러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날 서울시안의 대학, 중고등학교학생들과 수만명의 시민들은 군사파쑈《정권》의 발악적인 탄압을 물리치고 중앙청을 일시 점령하고 《국회》의사당을 포위하였으며 청와대에까지 육박해들어갔다. 시위자들은 경찰 848명을 까눕히고 서대문경찰서, 안암동, 아현동, 충정로, 동대문파출소를 비롯한 8개의 경찰파출소를 파괴소각하였으며 경찰기동대본부를 점령하였다. 또한 찔차와 《데모불도젤》, 군용트럭을 빼앗아타고 서울시청, 성동소방대, 중앙선거사무소, 경찰무기고 등을 습격하여 그 일부를 파괴 또는 점거하였으며 학생탄압에 혈안이 되여 날뛰는 파쑈경찰을 완전히 제압하였다. 이에 당황망조한 군사파쑈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6월 3일 서울지구에 파쑈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학교를 폐쇄하였으며 일체 시위, 집회를 금지시키는 한편 언론, 출판에 대한 엄격한 보도관제를 실시하고 수많은 애국적인 학생, 교수, 언론인들을 체포투옥하였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남조선전역의 대학들에 《방학》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광주, 춘천, 부산, 인천, 목포, 대구, 청주, 음성, 천안 등 지방들에서는 청년학생들과 시위군중들이 경찰과 육박전을 벌리면서 투쟁을 계속하였다.

굴욕적인 남조선일본《회담》을 반대하여 3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의 기간에 서울을 비롯한 42개 지역에서 53개의 대학과 193개의 중고등학교의 학생 38만여명과 많은 시민들이 시위투쟁에 참가하였다.

6.3봉기에서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매국적이며 반인민적인 《정권》타도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함으로써 미제와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파쑈통치체제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미제의 조종밑에 군사파쑈도당과 일본당국사이에 조급하게 벌어지고있던 범죄적인 회담의 《조기타결》책동을 짓부셔버렸다.

남조선에서 6.3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친미친일사대매국노들이 살판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협력을 위해 한발자국도 내짚을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느니, 《과거 쌍방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느니 하는 넉두리를 늘어놓으며 일제강제징용범죄와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비롯하여 천년숙적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을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또한 일본의 《반격능력》보유를 리해한다, 《북핵 및 미싸일위협》에 남조선과 미국, 일본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섬나라것들과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 미일남조선《확장억제협의체》가동과 《북미싸일정보》에 대한 실시간공유, 미국과 채택한 반공화국핵전쟁모의의 산물인 《워싱톤선언》에 일본의 참가를 합의하는 등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에 열이 오를대로 오른 사무라이후예들에게 조선반도재침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상시배치수준으로 끌어들이고 미국상전과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불장난을 그칠새없이 벌리며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동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는 천하역적, 친미친일사대매국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희세의 사대매국노의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책동과 윤석열역적패당을 비롯한 민족반역세력의 친미친일사대매국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그처럼 바라는 자주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것은 물론 불행과 고통, 재난의 심연속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된다.

이것이 6.3봉기 59년이 되는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찾는 심각한 교훈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남조선에 불행과 재앙만을 몰아오는 윤석열역적패당을 특등친미친일매국노로 단죄규탄하면서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김철남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온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공화국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초래할 파국적후과에 대해 여러차례에 걸쳐 알아들으리만큼 경고하였다.

그러나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윤석열역적패당은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침략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지난 5월에도 북침을 노린 전쟁소동을 그칠새없이 벌리였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남조선군의 3군단과 8군단것들이 린제군과 고성군, 속초시일대에서 야외기동전술훈련을 벌리였고 5월초에는 남조선강점 미군과 야합한 폭발물탐지 및 제거훈련을, 다음날에는 륙군 25보병사단것들이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실탄사격놀음을 벌려놓았다.

이후에도 경기도 련천군일대에서 남조선강점 미군과 야합한 련합도하훈련과 련합정보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졌으며 특히 5월 12일부터 19일까지에는 공화국의 주요대상들을 타격하는데 목적을 둔 대규모공중종합훈련인 《소링이글》(《높이 나는 독수리》)을 벌리였다.

역적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경기도일대에서 25일부터 벌려놓은 화약내짙은 《2023 련합합동화력격멸훈련》은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국침략야망, 전쟁대결광기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상전들도 기피한다고 하는 《격멸》이라는 단어를 한사코 훈련명칭에 박아넣고 력대 최대규모로 강행되고있는 이번 전쟁연습은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해보려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전쟁야망의 집중적발로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최근에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 야합하여 《다국적련합해상차단훈련》이라는것까지 기도하였다.

그 무슨 《대량살상무기의 전파》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공화국의 선박들에 대한 강제억류, 검문, 검색과 함께 항만봉쇄를 노린 《다국적련합해상차단훈련》은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다.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으로 하여 정세는 핵전쟁발발의 림계점에 이르고있다.

현실은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도발자이며 정세격화의 주범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광란적으로 벌리는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이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자멸적망동이라는것을 이제라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재침의 문을 열어준 친하역적

지난 5월말 일본해상《자위대》함선이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날리며 부산항에 뻐젓이 입항하였다.

공화국을 겨냥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다국적련합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일본해상《자위대》함선이 남조선에 기여든것은 일본《자위대》의 작전범위를 조선반도로 확대하고 반공화국압살을 위한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마디로 재침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침략적기도에 따른것이라는것이다.

섬나라것들이 해상《자위대》함선의 부산항의 입항과 관련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 위한 다국적련합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라느니,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니 하고 떠들었지만 그 어떤 궤변으로도 저들의 침략적본색을 가리울수 없다. 꿀발린 소리로 추악한 속심을 가리우는것은 섬나라것들이 력대로 써오는 상투적수법이다.

왜나라족속들은 1876년 2월 7척의 군함을 끌고와 조선봉건정부에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할 때에도 《조일사이의 평화와 친선을 도모》한다는 구실을 내댔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력사에 새겨진 갑오농민전쟁시기에는 《거류민보호》, 《공사관, 령사관호위》를 구실로 조선반도에 무력을 들이밀었다.

섬나라것들의 이 간특하고 간교하며 후안무치한 본색은 오늘에 와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른바 《북의 위협》에 미일남조선이 《3자공조》로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그에 토대하여 반공화국침략전쟁도발로 전조선을 타고앉으며 나아가서 아시아대륙까지 병탄하려는것이 군국주의후예들의 기도이다.

이처럼 재침야망에 환장이 된 섬나라것들에게 침략의 길을 열어주고있는 천하역적들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의 동반자로 변하였다.》는 얼빠진 수작을 늘어놓으며 일제강제징용범죄와 일본군성노예범죄 등 섬나라족속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을 덮어주고 재침책동에 광분하는 왜나라것들과 반공화국압살을 위한 군사적결탁놀음에 매달리다 못해 오늘에 와서는 천년숙적들이 피로 얼룩진 《욱일기》를 날리며 남조선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는 특등매국노들이다.

오늘은 사무라이후예들이 역적패당이 열어준 재침의 길을 따라 과거 일제가 침략전쟁마당에서 사용하던 《욱일기》를 날리는 군함을 끌고 남조선에 기여들었다면 래일에는 《일장기》와 《욱일기》를 날리는 땅크와 군용기들, 함선집단을 끌고 남조선을 타고앉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추악한 친미친일사대매국책동에 의해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의 2중식민지, 핵전쟁화약고,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락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이 《매국노 리완용이 활개치던 구한말을 보는것같다.》, 《일본군함의 〈한〉반도 진입은 이 땅이 결딴나는 시작이다.》, 《더 큰 재앙을 당하기 전에 윤석열을 빨리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면서 반윤석열, 반미, 반일투쟁에 대중적으로 궐기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 민심에 역행하여 민족앞에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윤석열역적패당에게 차례질것은 비참한 파멸밖에 없다.

류광훈

말말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법과 위법의 경계를 서슴없이 넘나드는 〈윤석열식법치〉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압수수색을 받은 기자는 과거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했던 기자로 〈날리면〉보도에 대한 보복인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윤석열역도가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시키고 경찰이 《MBC》방송사 기자를 압수수색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한 성토중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자위대〉함이 부산항을 유린했다. 항일렬사들이 지하에서 분통을 터뜨릴 일이며 력사정의를 무너뜨린 폭거다.》

(일본《자위대》함선이 《다국적련합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데 대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의 성명중에서)

시 피할수 없는 숙명

김영일

미국이 던져준 개목사리
그 무슨 보석목걸이인양 자랑하더니
오늘은 미국상전에게서 미치광이라 불리운 역도
역시 수하의 졸개는 상전이 잘 아는 법
올데갈데 없이 역도는 미친개!

상전을 위해서라면
앞뒤도 가리지 못하는 역도의 추태
제 죽을줄 모르고 날뛰는 무모한 광태에
너무도 어울리는 미치광이
이런 《선물》받고도 싱글벙글하는
영낙없이 그 꼴은 미친개몰골이구나

《북비핵화》, 《3자공조》
게거품 물고 영악하게 짖어대며
아무나 물고뜯는 그 광태
간도 쓸개도 서슴없이 섬겨바치는 그 행태
미치광이와 너무도 신통해
상전의 입에서 불쑥 튀여나온 말 《미치광이》

미국의 개목사리를 목에 건 주제에
여기저기 코를 벌름거리며
죽을둥살둥 모르고 짖어대는 역도
미국의 충견, 사냥개로 사는것도 모자라
섬나라의 번견으로까지 되였구나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
겨레가 추켜든 몽둥이에
그 언제 사둥뼈가 부러질지 모른다
역도가 갈길은 정해져있거늘
뭇매를 맞아 처절하게 숨이 끊기는
그것이 미친개 윤석열 너의 숙명이다

미군강점 70여년의 후과, 극심한 환경파괴

얼마전 남조선에서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룡산시민회의》의 주최로 《룡산공원, 오염정화가 먼저다! 만보걷기》의식이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국민〉혈세를 탕진해가며 이전한 〈대통령실〉근처는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오염정화는 생략한채 이름만 〈룡산공원〉이라고, 〈어린이정원〉이라고 명명하면 그것이 진정 공원이 되겠는가.》, 《오염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공원으로 성립될수 없다. 〈룡산공원〉개방은 〈국민〉사기》이라고 성토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환경파괴범죄를 묵인비호하는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신랄한 단죄이고 규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침략과 략탈, 예속과 굴종으로 얼룩진 남조선미국《동맹》의 70년사에는 남조선땅에 둥지를 틀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죄악이 얼룩져있다.

미군이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현지주민들을 강제로 내몰고 수많은 미군기지들을 건설하였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현재 남조선에 둥지를 튼 미군기지의 총면적은 100여개 지역에 7 320만평에 달하였다.

남조선의 곳곳에 독거미마냥 들어박힌 미군기지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존엄을 유린하고 온갖 패륜패덕과 범죄를 낳는 온상, 악의 근원으로 되여왔다.

미군의 환경파괴범죄로 인한 피해 또한 막심하다.

미군기지들과 그 주변지역은 강점군이 오래동안 내버린 폐유와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 등에 오염되여 풀 한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불모의 땅으로 화하였고 주변의 강하천 역시 먹는 물은 물론이고 공업, 농업용수로도 리용할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지어 미군은 고엽제를 비롯한 독해물까지 마구 내버리고 남조선땅에서 극악무도한 세균무기실험까지 감행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해왔다. 이뿐이 아니다.

미군은 저들이 사용하던 기지들을 황폐화시켜놓고 그에 대한 원상복구는 없이 그대로 남조선에 넘겨줌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게 하고있다.

몇해전 춘천시에 있던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의 여러곳에서는 기준수치를 훨씬 넘어선 토양오염이 확인되였다. 또한 시굴조사과정에 아스팔트포장재가 들어있는 페도람통들도 발견되여 주변환경이 심히 오염되여 있었다고 한다.

춘천시뿐이 아니다. 미군이 틀고앉아있던 각지의 미군기지 오염실태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의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토양과 지하수환경오염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북도 대구시에 있던 남조선강점 미군기지 《캠프 워커》직승기착륙장의 토양, 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도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이곳의 건물내외부에서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것으로 나타났고 조사결과 발암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그 검출면적이 축구장 5개 면적에 해당하는 3만여㎡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비소는 그 기준치를 14.8배나 넘어섰으며 그것은 이곳이 거주지역으로 쓰일 경우 주민 1만명당 2명이 암에 걸릴수 있는 량으로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것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동두천과 포항 등 미군기지들에서도 기준수치를 훨씬 넘는 발암물질들이 검출됐다고 한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땅을 한갖 전쟁연습터, 오물처리장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미군이 저지른 특대형 죄악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많은 사안들이 〈한미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여왔다. 〈한미군사동맹〉을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어놓고 〈국민〉의 자존심과 주권을 희생시켜온것이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주둔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고 주장하면서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이 올해가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체결로 《동맹》관계를 수립한지 70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그 무슨 《굳건한 동맹관계》와 《쌍방관계의 도약》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미국에 명줄을 걸고있는 친미노복들만이 할수 있는 추악한 사대매국적추태가 아닐수 없다.

죄악으로 가득찬 강점군의 력사를 미화분식하면서 친미사대와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뛰는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일제식민지통치를 찬미하던 어제날의 을사오적과 다를바없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역적의 무리이다.

김영호

《온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심판을 위한 대중적투쟁 광범하게 전개—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전시물들

— 평양문화전시관을 찾아서 —

유구한 력사와 문화, 뛰여난 절승경개를 자랑하는 평양에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평양문화전시관이 자리잡고있다.

공화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이곳 전시관을 한번 돌아보면 세상에 자랑높은 조선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에 대하여,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공화국의 현실과 비약적인 발전모습을 한눈에 알수 있다.

평양문화전시관의 드넓은 홀에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과 각종 분야의 도서들, 《조선》, 《금수강산》 등 공화국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화보, 화첩들이 전시되여있다.

산좋고 물맑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과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미술작품들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뛰여난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 조선화, 유화, 조각들은 보는 사람들을 신비한 예술의 경지로 이끌어간다.

이곳 전시관의 최성희관장은 지난 시기 전시관을 찾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사진들과 화보, 화첩, 다매체편집물들을 통하여 공화국의 발전면모를 잘 알수 있었다고 말한데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한 해외동포는 《공화국에는 독특하고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이 많다. 아름다운 미술작품들과 문화유산들은 우리 민족이 세계문화에 훌륭한 기여를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유럽대표단의 한 성원도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이 진리는 평양문화전시관에 한번이라도 와보면 누구나 충분히 알게 될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고 한다.

평양문화전시관은 다채로운 문화행사공간으로도 리용되고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여간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직접 적담당자라는 자각을 안고 공화국의 교육단위들에서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서성구역 중신고급중학교에서는 교육과 실천을 밀착시켜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공간을 현대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나가고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쓸모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자면 책상에서가 아니라 부단히 현실에 접근시킬 때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실험실습교육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는데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학교에서는 자연기초과학실습실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는것과 함께 다양한 실험실습실들을 꾸려놓고 수업시간뿐 아니라 과외시간에도 널리 리용하고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천성적인 소질과 재능에 따라 한가지이상의 기술기능을 소유하도록 하고있다.

평천구역 봉학소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수방법과 수단들을 적극 창조도입하고있다.

학교에서는 지식전수의 틀에서 벗어나 교수구조를 문제설정단계, 문제해결단계, 종합결론단계, 응용실천단계, 과제제시단계로 새롭게 설정하고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을 창조형, 실천형인재들로 키우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어린이영양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 마련

공화국의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것을 중점으로 틀어쥐고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적극화하고있다.

이곳 연구사들은 불같은 사색과 창조의 열정을 기울여 《어린이영양관리안내지도서》를 탁아소와 유치원용, 산부인과 및 호담당의사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보건일군들과 보육일군들이 나이에 따르는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성장발육특성과 그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출생후 여섯달부터 17살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발육상태를 평가하고 영양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기초자료들을 구축하였다.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가자료통신망에 홈페지를 개설하고 해당한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보충하는 체계를 세워놓아 보육원들뿐 아니라 어린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널리 보급할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였다.

이곳 연구사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안아오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농사군은 굶어죽어도 씨오쟁이를 베고 죽는다

농민은 죽는한이 있더라도 종자만은 꼭 보관한다는 뜻으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서 종자를 잘 보관하는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르는 말.

※ 씨오쟁이 — 여러가지 씨앗을 담아두는 짚으로 엮어만든 작은 그릇.

— 농사물정 안다니까 피는 나락 해기 뺀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농사물정을 좀 안다고 추어주니까 한창 패는 벼이삭을 뽑는다는 뜻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추어주는 바람에 더 엉뚱한짓을 하여 무식함을 스스로 폭로한다는 말.

— 농사철에는 부지깽이도 바삐 뛴다

농사철에는 일손이 모자라고 모두가 몹시 바쁘다는것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음악지휘자 허재복

이역땅에서 류랑민의 자손으로 태여난 허재복은 10살을 갓 넘긴 나이에 음악콩클에서 바이올린독주를 하여 은컵을 받은 음악신동이였다.

하지만 나라없는 설음을 한탄하며 구슬피 타던 바이올린의 선률에 관중도 울고 자기자신도 울던 암흑의 세월 음악에 대한 그의 꿈은 실현될수 없었다.

나라가 해방되여서야 그는 평양에 갓 창립된 국립음악학교(당시)에 편입하여 마음껏 공부할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전선으로 탄원하여 내무성협주단(당시) 연주가, 지휘자로 활동하던중 국가적조치에 따라 전선에서 소환되여 어느한 나라의 음악대학 관현악지휘과에서 류학하게 되였다.

류학기간에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전련맹지휘자콩클에서 1등을 함으로써 온 유럽을 흥분시켰다.

전후 조국으로 돌아온 허재복은 국립교향악단 지휘자로 두각을 나타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7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금메달을 받은 무반주합창 《법성포배노래》는 그의 정열적이고 재치있는 지휘능력을 보여준 단편적인 실례이다.

치밀하고 원만한 형상조직자로서 음악예술적론리와 감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고 속도와 자세, 음감과 지휘도식이 매우 정확한 특기, 더우기 왼손의 자유롭고 재치있는 손세는 그만이 가지고있는 장기였다.

그는 수많은 교향곡들과 세계명곡들을 훌륭히 형상하여 천리마시대의 교향악수준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우는데 적극 기여함으로써 20대에 공훈배우칭호를, 30대초에 인민배우칭호를 수여받았다.

일단 연주에 들어가면 온몸이 불덩이가 되군 한 정열가였던 그는 정확한 지휘초점, 음악전반균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절세위인들께서는 허재복에게 만수대예술단 수석지휘자겸 단장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는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를 비롯한 새로운 수많은 음악작품창조사업에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은 유능한 지휘자, 관록있는 일군이였다.

그는 외국공연때마다 고도의 섬세성과 풍만한 정서를 자아내는 매혹적인 지휘로 관람자들의 넋을 휘저어놓군 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의 지휘동작을 찍는 기자들의 사진기섬광과 샤타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당신의 지휘솜씨는 참으로 신비하다, 그 열손가락에서 모두 음악이 울려나오는것만 같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자라난 허재복은 오늘도 사람들의 추억속에 영생하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여름철옷에서 중요한것

여름철은 더운 계절이므로 더위를 막을수 있게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

더운 환경에 맞게 옷의 색갈과 재질, 형태 등을 잘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여름철옷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옷의 색갈이다.

여름철에 흰색모자를 쓰면 머리에 받는 1/3이상의 해빛을 막을수 있으며 옷의 색갈은 해빛반사률이 높은 반면에 흡수률이 낮은 흰색과 노란색을 선택하는것이 좋다.

여름철옷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옷감의 공기통과성이 좋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글게 짠 옷감이 빽빽하게 짠 옷감보다 공기통과성이 더 좋다.

여름철옷감은 얇고 가벼우며 유연하면서도 탄성이 좋은 천으로 선택하여야 몸의 열이 잘 빠지고 서늘하면서도 편안한감을 주게 된다.

여름철옷감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몸의 누기를 잘 빨아들이고 빨리 내보내는 성질이 좋아야 한다.

명주천이나 일부 인조섬유천들은 땀빨기능력이 매우 강하면서 누기를 내보내는 속도 역시 빠르므로 여름철옷감으로 리용하는것이 가장 적합하며 그다음은 면천들이다.

합성섬유와 자연섬유를 적당히 혼방하여 만든 옷감들도 누기빨성과 발산성이 다 좋아 많이 리용된다.

여름철옷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옷형태가 바람이 잘 통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옷의 형식은 입기에도 편리하고 바람도 잘 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T샤쯔, 달린옷, 소매가 없거나 깃이 없는 샤쯔형태 등을 많이 리용하는것이 보기에도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다.

본사기자

풍부한 우리말

경치, 풍치

공통뜻: 자연의 모습.

개별뜻:

경치—눈에 바라보이는 자연이나 지리적환경의 풍경, 모양을 이루는 말이다.

보통 경치가 《좋다.》, 《나쁘다.》라고 한다.

례: 경치가 좋다. 경치가 아름답다.

풍치—격에 어울리는 멋 또는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경치를 이르는 말이다.

보통 풍치가 《있다.》, 《없다.》라고 한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전 설 (3)

글 김석문, 그림 채대성

유강산이 13살 나던 해 태평양전쟁을 치르고있던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련합군에 밀려 파달카날섬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였다.

아시아의 《맹주》라던 일본군의 《옥쇄》소식이 련이어 날아들었다. 다음해에 일본은 마리아나해전에서 참패하였으며 난공불락이라고 떠들던 싸이판섬도 끝내는 함락당하였다.

패전의 기운은 점점 더 짙어갔다. 그해 겨울부터는 싸이판섬에서 출격한 《B—29》폭격기들이 일본본토에 폭탄을 마구 떨구기 시작하였다.

죽기 전 발악이 제일 심한 법이라고 왜왕의 숭배자들은 그야말로 미친것처럼 기광을 부렸다. 지주집 소년머슴이였던 어린 유강산이 영문도 모르고 징용에 끌려간게 바로 그해 겨울이였다.

왜놈경찰들은 주운 삭정이를 지게에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유강산을 떠여보고는 주재소 류치장으로 다짜고짜 끌어갔으며 다음날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부산행기차에 훌쩍 올려태우는것이였다.

기차에는 이미 많은 조선사람들이 끌려와있었는데 그들중에는 유강산처럼 10대의 소년들도 더러 보였다. 그들모두는 칼을 찬 순사들의 물샐틈없는 감시를 받고있었다.

팔자에 없는 《죄인》이 되여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부산까지 강제압송된 그들은 다시 항에 집결된 수많은 조선사람들과 함께 관부련락선을 타고 시모노세끼로 끌려가게 되였다.

당시 놈들에 의해 짐짝처럼 선창에 처박히운 조선사람들은 끌려온 후 제대로 먹지도 못한데다가 파도가 심하여 모두가 게우고 설사하고 쓰러지다보니 선창안은 그야말로 짐승우리를 방불케 하였다.

끝내 몇사람이 몸부림을 치다가 정신을 잃었으며 그렇게 되자 왜놈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끌어내여 날바다에 던져버렸다.

시모노세끼에서 수백명단위로 다시 편성된 징용자집단에 끼워 유강산은 다시 나가사끼로 강제수송되였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미쯔비시하지메탄광이라는 곳에서 멈춰서게 되였다.

찬바람을 맞아 몸을 우들우들 떨어가며 눈속의 길을 찾아 겨우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것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왜놈감독의 일장연설이였다.

미쯔비시표식을 팔소매와 모자에 붙인 그 왜놈은 유강산이네가 공지에 들어서기 바쁘게 단우에 뛰여올라가서는 알아듣지 못할 왜나라말로 무엇인가를 그냥 줴쳐대는것이였다. 그리고 마감에는 뒤쪽을 돌아보며 저희 놈들에게 손짓을 해댔다.

모두의 눈길이 그쪽으로 쏠렸다.

조금 있더니 그쪽에서 뒤결박을 지은 조선사람 두명이 감독놈들에게 붙잡혀 끌려나왔다.

웅기중기 모여섰던 사람들속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핏 귀동냥해 들으니 그들은 시모노세끼에서 도주하려다가 붙들린 사람들같았다.

감독놈은 그들을 가리키며 또다시 뭐라고 왝왝 고아대였다. 도주하려 했기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는것같았다.

갑자기 놈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악귀같은 감독놈들은 그 두사람의 옷을 벌거벗기더니 바줄로 발목을 비끄러매여 전주대에 거꾸로 매달고는 끝을 뾰족하게 깎은 참대창으로 그들의 배꼽을 푹푹 찌르는것이였다.

아우성소리가 터져나왔다.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눈이 덮였던 공지는 삽시에 끔찍스런 인간도살장으로 화하고말았다.

몸서리치는 만행에 넋을 잃은 징용자들을 왜놈들은 칼과 몽둥이로 위협하면서 시커먼 굴간으로 강제로 들이밀었다.

작업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하루 16~18시간, 지어 어떤 날에는 20시간씩 강요되는 중로동에 몸이 허약하고 기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흑사병이라도 만난것처럼 무리로 죽어나갔다.

짐승사료로도 쓰지 못할 곰팽이가 낀 콩깨묵에 썩은 보리쌀을 섞어 만든 한덩이의 밥에 절인 무우 두세쪼각과 멀건 소금국이 그들의 한끼 식사량의 전부였다.

왜놈들은 그것을 돼지먹이로도 쓰지 않았다. 돼지들한테 그것을 먹였다가 죄다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징용자들에게는 그나마도 변변히 차례지지 않았다. 감독놈들은 꾀병을 부린다거나 일을 잘 안한다거나 굼뜨다거나 하는 식의 이러저러한 트집을 걸면서 걸핏하면 끼니를 굶겼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한갖 소모품같은것으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던 징용자들은 해골처럼 되여버린 몸으로 매일 수십메터의 땅속에서 탄을 캐여 날라야만 하였다.

놈들에게는 인정사정이 꼬물만큼도 없었다. 동상을 입어 퉁퉁 부은 맨발로 힘에 버거운 탄차를 밀다가 찌르는듯한 아픔을 참느라고 잠간 서있을라치면 즉시에 달려와서 어린 유강산의 발등을 곡괭이자루로 쿡쿡 내리찍었다.

《아픈가, 아프다는것은 아직 신경이 살아있다는것이고 신경이 살아있다는것은 아직 일을 할수 있다는것이다. 꾀병이나 하지 말고 빨리빨리 일하라.》

그다음은 영낙없이 왜놈감독의 사정없는 매질이 시작되군 하였다.

놈들은 유강산을 비롯한 징용에 끌려온 조선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벌레처럼 여기였으며 《센징》은 오직 매로 다스려야 한다고 공공연히 뇌까리면서 저들의 눈에 거슬리면 그 자리에서 때려죽이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온몸이 쪼그라드는 지옥같은 곳에서 왜놈들에 의해 강요당한 2년간의 중로동으로 유강산은 신경쇠약에 폐염을 앓았으며 10대에 경추가 휘여들었고 락반에 치여 척추가 부러졌다. 하여 그는 일생을 불구로 고통받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

눈의 충혈을 완화시킬수 있는 손안마

눈의 충혈은 일반적으로 수면부족, 정신적긴장, 피로 등에 의해 생긴다.

이때 손에 있는 혈을 자극하는것도 눈의 충혈을 완화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손바닥의 합곡, 상양, 소택, 대릉, 로궁 등의 혈을 자극할수 있다.

합곡은 손을 펴고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벌릴 때 뼈가 갈라진 오목한 곳이다.

상양은 둘째손가락의 요골쪽 손톱뒤모서리에서 약간 내려와있으며 소택은 새끼손가락손톱의 바깥쪽 뒤모서리에 있다.

대릉은 손바닥쪽의 손목금에서 가운데에 해당되는 곳이며 로궁은 손을 가볍게 쥘때 넷째손가락끝이 가닿는 곳에 있다.

해당한 혈들을 한번에 2~3분씩 자극하면서 손을 안마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웃음 관찰사가 되고싶어서

어떤 량반이 서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입속으로 외우며 다녔다.

하루는 그와 친하게 지내는 한 고을원이 그가 자는 방의 창문앞에 와서 관찰사의 이름을 쉬임없이 외워대고있었다.

그 소리에 깨여난 관찰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내 이름을 외우고있는것이냐?》

그러자 고을원이 이렇게 말하였다.

《관찰사께서는 부처님이 되여볼가 해서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것이 아닙니까? 나는 관찰사가 되여볼가 하고 이름을 외우는것입니다.》

ㄱ—1602ㄷ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